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New Start 한국 해운강국 재건에 역량 집중”

2018년 ‘황금 개의 해’를 맞아, 우리경제와 해양수산업에 활력이 넘치고, 그 온기가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해양수산업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말할 만큼, 해양수산업의 중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취임 이래, 해양수산부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안으로는 조직을 쇄신하고, 밖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해양수산업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세계경제 침체, 한진해운 파산, 연이은 사건사고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해양수산업 과제가 3개나 선정되었습니다. 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등 해양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5조원의 예산을 돌파,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업정책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업 R&D 예산이 3.5%나 증가해 차세대 먹거리와 함께 해양수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업 각 부문에서도 뜻 깊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지난 8월 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확정·발표했고, 관련 법률도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적선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해운연합(KSP)도 결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

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업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등 계속되는 해양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높아졌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수산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취임시부터 강조해왔던 ‘3관(관행안주, 관망보신, 관권남용)’ 척결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출범예정인 제2기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의혹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제도도입, 예산확대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하여 해양수산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원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해양진흥공사를 7월까지 설립하여 선박 발주와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을 도입하여 산업간 상생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성장산업의 주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초고속 해상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 첨단 물류체계를 실현하여, 국가 수출입의 99%를 차지하는 해운산업의 스마트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촌 뉴딜사업과 항만재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재창조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해양치유산업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철저한 자세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 자는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갖

고 있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 갈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업인의 저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선주협회 이운재 회장

“10년 침체 떨치고 한국해운 재건 원년, 도약의 해 되길”

새해에도 해양가족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7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국내 정치불안과 새정부 출범, 북한 핵과 사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 고조,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정세의 불안 등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업계는 무엇보다도 해운산업 재건이 화두였습니다. 외국 선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불어난 몸집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안 우리업계는 한진해운 사태를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우리 업계의 건의사항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년의 위기를 견뎌 내었습니다. 이 저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침체를 떨쳐버리고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한국해운재건의 원년을 맞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국가필수해운제도, 폐선보조금 제도 등 각종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선사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200만TEU 이상의 메가컨테이너 선사 육성에 노력하고, 한국해운연

합을 통한 선사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인트라아시아를 포함한 근해항로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적선 적취율 향상을 위한 선화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 적취율을 50% 이상 올리고 전락물자는 100% 모두 국적선사가 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해상운송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관행을 바로 잡아 공정한 해상수송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원만한 노사협력을 통해 해운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선원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시행, 2020년 황산화물 선박연료유 사용 규제, 그리고 올해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등 날로 강화되는 해양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첨단 시대를 앞서가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어두웠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해양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한국선급 이정기 회장

“4차산업 기술역량 확보와 기존 선급사업 경쟁력 강화”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조 수주 급감에 따른 큰 폭의 수입이 감소 우려 속에 새해를 시작했고, 날로 치열해지는 선급간 경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급발전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전사적으로 치열하게 비용절감 활동을 전개하고 조직을 선제적 정비했으며, 적극적인 수입창출 노력을 통해 당초 우려했던 재무적 어려움은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래 발전기반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다.

2018년 역시 해운/조선 산업 전반에 걸친 유동성 위기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산업의 침체로 업무 확보를 위해 선급들 간의 사활을 건 경쟁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2018년 우리선급의 발전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선급 핵심기술역량 강화입니다. 그 중 으뜸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산업 기술 역량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필요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우리선급의 생존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경쟁 선급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사의 역량을 모아 자율운항 선박 실용화를 위한 관련 제반규정 개발 및 빅데이터 처리기술 연구 등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 전문가 확보 및 기반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업계와의 상호협력 및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통한 기술력확보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존 선급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우리선급 등록선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외부적으로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이 예상되기에 그 어느때보다 등록선대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과 같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고 침체된 국내 해운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통한 국적선사의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기술서비스를 통해 입급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영기반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체되는 수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70여 개가 넘는 해외서비스망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해외서비스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외 현지인력 채용 확대를 통해 해외지부 운영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선급을 먼저 생각하는 900여명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선주상호보험 박정석 회장

“규모의 경제 확보로 중견P&I클럽으로 성장하러”

올해는 우리 해양수산업계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해운업의 활황과 번성의 한 해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며, 해양수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시간에도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주기 위해 세계의 바다에서 승선행해 중인 선원 여러분과 가정에도 특별히 안전항해와 건강을 축원합니다.

Korea P&I는 지난 18년간 한국해운과 함께 했습니다. 유사 이래 최고의 해운업 호황을 함께 했고 또한 최악의 불황도 곁에서 지켜보며 그 동안 격랑의 한국해운호와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해운의 훌륭한 자산이자 위험관리인입니다. Korea P&I가 220개 회원사, 1,090여척, 연간보험료 3천만불을 보유하는 안정적인 P&I클럽으로 발돋움하기까지 후원과 협조를 다해주셨던 회원사와 해양수산 업계와 정부 당국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KP&I는 AM Best사로부터 6년연속A-(Excellent)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 우량보험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으며, 중국 발생 클레임에서 2천만불의 지급보증서를 단시간에 제공해 가압류된 선박을 신속하게 해제하는 국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외클럽과 공동보험인수 계약을 통해 클레임/계약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VLOC, VLCC, LNG 포함 모든 선종의 선박인수 문제를 일시에 해소, 글로벌 P&I클럽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선사가 감내하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 P&I보험료 인상을 동결하여 해운선사의 비용절감에 일조했습니다.

새해에는 이미 구축한 P&I Club으로서의 전문성과 위상을 바탕으로 우선 규모의 경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타P&I클럽과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위를 점하려면 지금보다는 회사의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합니다. 보험중개인의 협조와 독자적인 마케팅 강화는 물론 고객의 니즈와 밀착서비스 제공으로 국내외 선사 가입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외형적으로 중견P&I클럽으로 성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대형선사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외P&I클럽과의 다양한 업무제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대형선사도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업무능력, 국제화, 전문성 향상, 체질개선, P&I보험 시스템 완비로 해외클럽과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P&I클럽, 해외P&I 클럽을 대체할 수 있는 P&I클럽이 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국내 해운업계에 봉사한다는 일관된 자세로 전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장착하여 해운선사들이 가장 믿고 찾는 P&I클럽으로 변모하겠습니다.

Korea P&I는 KP&I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클럽이 아니라 국내해운의 유관단체이자 동반자로서 국내해운의 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수부, 선주협회, 국책은행, 한국해운연합 등의 가교 역할에도 적극 나서며 국내해운의 재건에 힘을 쓸 것을 약속드리니 KP&I의 성장의 결과는 결국 우리 해양수산업계에서 최종적으로 향유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신뢰를 더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

“안전도선”으로 해상이용 손님에 한국의 좋은 모습 알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기가 더해져 갑니다. 88년 당시, 대부분 청년이었던 우리 도선사는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청춘과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대한민국의 존재가 세계에 알려지는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에, 영광스럽게도 우리 도선사가 한국의 관문인 항만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더욱 분주히 활동할 기회가 왔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훌륭한 ‘안전도선’을 통해 해상으로 한국을 오가는 많은 손님에게 한국의 좋은 모습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난해 도선사회는 ‘도선법 개정’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도선사면허를 4단계로 나누어 도선가능 선박 규모와 종류를 새롭게 정의하고, 도선계획 제공과 설명의 의무화 및 교육을 통한 면허갱신을 법제화했습니다. 올해는 제도가 자리잡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가 도선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살펴 향후 활동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과 맞물려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KOPEC)가 더욱 향상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교육연구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내외적인 교류를 통한 정보 획득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도 제도변경과 관련된 많은 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도선사를 국가필수 항만사업자로 지정해 활용하려는 제도와 숙련 도선사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선사 수급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국회 입법된 도선법 개정(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힘쓰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1차 아시아도선사포럼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 열려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국제도선사협회(IMPA) 서울 총회에서 한국 도선사의 주도로 적극 논의됐으며, 아시아권 도선사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결실을 보았습니다. 평소 국제도선사협회 등 도선사를 위한 조직이 미국과 유럽을 위한 편중된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여 존재감 있는 좌표를 마련하려 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선사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한국 도선사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목소리에 힘을 신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2021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을 공표하고 해사안전 5대 미래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해사안전관리체계 도입·운영,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한국형 e-Navigati

on) 실현, 민간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과제를 고려할 때 도선사의 ‘안전도선’ 수행과 대내외적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협회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선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

겠습니다.

도선업무를 지원해주시는 전국 지회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선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활약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전국 항만의 도선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

술년, ‘바다의 외교관’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에 걸맞은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해입니다. 최고의 실력과 친절한 서비스로 대한민국 해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합시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회원이 찾는 협회’가 되는 무술년 되기를”

‘회원이 찾는 협회’가 되는 무술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 아침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해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그 해가 오늘의 이 해이고 매일 뜨고 지던 그 해입니다. 새해의 첫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의 회한과 섭섭함, 상처 이런 것들은 새해 아침에 떠오른 첫해에 모두 실어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정유년 한 해는 사회적·정치적으로 격변과 갈등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10년 장기 불황에 빠져 있던 해운 경기는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서광을 보며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8개월 전에 협회장에 취임하여 ‘회원이 찾는 협회’를 만들어 보고자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협회의 비전(VISION)을 정하고 ‘소통’, ‘대표성 확보’, ‘세력화’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세우는 한편, 세부 실행 계획까지 수립하고 2018년 새해 아침에 봉정만리(鵬程萬里)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해에는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원의 DB(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SNS’ 소통을 위한 IT 개발을 완료할 것입니다. 해기사들의 해육상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미 개발한 PC버전에 이어 모바일 앱 버전을 추가하겠습니다. 한국 해기사의 고용확대를 위해

‘대표성’을 갖고 노·사·정·학을 선도하여 고용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관계처와 협력하여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를 저지하겠습니다. 회원의 DB 완성과 회원 증대, 가족 회원 증대를 통해 회원의 수를 늘리고 SNS로 묶어 해기사들을 조직적으로 사회적 세력화하겠습니다.

‘선장·마리너스 포럼(가칭)’을 만들어 현장 안전 등 해기 기술적인 논의와 사회적 해기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적 의견을 개진하고 해기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겠습니다. 협회의 모든 상임·비상임 임원들과 직원들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일치단결하여 견마지로(犬馬之勞)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기사의 위상과 권익은 남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참여하는 회생을 자양분으로 하여 길러지는 것입니다. 해상을 떠나 육상으로 이직한 해기사들도 해상 해기사였던 추억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해기사이었기에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겸손한 감사의 마음으로 해기사의 친목과 권익 제고에 일조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해·육상 해기사 여러분! 올해는 언제나 인간의 곁에서 평화와 행복을 지켜온 ‘공존과 동행’의 반려자, 개의 해입니다. 우리 해기사들이 모두 ‘공존과 동행’의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조직단결의 원년으로 삼겠다”

2018년은 선원과 선원가족 모두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격동의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는 촛불광장에서 활활 타올랐고,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정권은 사상유래 없는 탄핵으로 최후를 맞이했고, 조기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믿고 국민은 지지를 보냈고, 노동자는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는 조직단결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더 이상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선원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노동조합연맹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선원의 권익향상은 물론, 선원 가족의 행복, 선원의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그 무엇 하나 빠짐없이 돌보며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손관수 회장 “항만시설 보안료 통합징수시스템 구축과 시장 안정화 노력”

2017년 한해 국내 컨테이너시장은 '16년 한진해운 사태를 극복하며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해외선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환적물량의 이탈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벌크시장 또한 세계 철강 산업의 침체에 따른 철재 물동량 감소 등 품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들려오는 해상사고에 안타까운 선원의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장기 침체 속의 해운경기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첨단기술로 점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항해기술로 선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혁신하지 않으면 낙오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원의 노동여건과 정책은 크게 변해야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면 단결이 최우선의 일입니다. 크게 내딛고, 높이 도약하기 위해 힘은 모으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땀과 열정으로 만든 여러분의 오늘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올 한해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한해 항만물류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국내 항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체결한 ‘노·사·정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항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고 TOC에서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임대료 10%)의 납부를 제한적

으로 유예시킴으로써 부두운영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TOC 대형화·통합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TOC 단일화 기준을 개선하여 부두운영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6년 제정된 ‘항만하역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제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8년도 TOC 성과평가부터 평가요소로 추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됨으로써 불합리한 계약 관계 개선과 과도한 요율 덩핑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김병진 회장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물류 시장침해 방지책 추진”

2017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기운이 넘쳐났던 해의 한해였습니다. 협회도 지난 3년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온 2020년 FIATA 세계총회 한국(부산) 유치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 물류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물류산업 전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협회는 2020년 FIATA 총회 유치를 비롯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무분별한 3자물류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개정 추진, 국제이사화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운영 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물류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물류전문가 육

출해 우리나라는 금리인상 변동성 확대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환율 리스크가 예상되는 등의 경기 불안요소가 산재되어 있고 선박 대형화에 따른 각국의 거점항만 경쟁 심화로 시설 증강을 위한 비용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항만물류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대내외적 위험요소들을 극복하고 국내 항만물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도 전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정부, 항만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정부와 하역요금 준수 및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과 함께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 모두를 만족시키는데 일익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물류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산업 변화를 회원사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기관과의 협업, 각종 조사연구사업, 국제물류산업 전망과 대응전략에 관한 정부와의 공동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류강국 입지 강화를 위해 2018년 FIATA RAP(아태지역회의) & UNESCAP(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부산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2020 FIATA 세계 총회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제물류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술년 한해 회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회원사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상직 회장

“해운선진제도 정착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

한진사태,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불협화음, 미국의 통상압력, 급격한 유가인상과 원화 평가 절상 등 지난해의 이슈들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우리 회원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 사건들이었습니다만, 어려움을 헤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신 회원사 여러분의 노력과 투지에 찬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협회도 3개사의 새로운 회원사를 영입하고 새로운 협회 사무실을 매입하여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협회의 재무 건전성을 단단히 확보했고, 각 분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업계의 원활한 유대관계와 협회와 회원사간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 발전시킨 협회 이사진과 협회 임직원의 노고에도 감사로 표

합니다.

다행히 해운시황은 부정기선 중심으로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정기선분야도 새로운 얼라이언스의 정착으로 과당경쟁 구도도 완화되어 가고 있음으로 보아 새해에는 좀더 좋은 시장 경제를 기대해 봅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외환거래 규정, 항만요율 인상 억제, 해운대리점 등록갱신제도 개선(폐지), 컨테이너중량 정보 변경료 등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기관과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동참하여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

“국민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연구 수행 매진”

그동안 해양수산업계는 세월호 사고, 한진해운 청산, 조선업 침체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가 다수 반영되어,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물론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GDP 기여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해양수산업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글로벌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과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해양강국’ 추진을 위한 실행 핵심전략을 발굴하여 우리 해양수산업이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처럼 해양수산 환경변화와 현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국민경제와 기업은 물론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 수행에 치열하게 매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해양수산가족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원장

“국제화로 신시장 창출, 무인자율선박 대비 해운인력양성”

앞으로 해운산업 여건은 변화무상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수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상황변화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해온 기존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해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업무, 초급해기사 양성사업은 우리 연수원의 설립목적 사업인 만큼 절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선실습선 건조, 서해권 및 해양플랜트 건립 사업 역시 차질없이 수행하고, 새로 개설되는 어선중개업, 해적대응 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협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원격교육, 시대변화에 따른 사이버교육, 지역별 거주자 불편해소를 위한 원격지 강의체계도 갖추어 나가야 하며, 교과과정과 개별강의 평가에 따른 환류과정을 통해 수요자에게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교육은 2017년도 관련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달성하여 산업계의 지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17년 우리 연수원은 해운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폭증한 교육수요와 해기사 시험 수요를 무리 없이 해소했으며, 국제세미나, 교육장비 도입 및 교육시설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풍부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증한 수요를 해소하고 2~3년이란 시간적 여유를 번 이 시점, 우리 연수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화를 통한 신

시장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작년 추진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세미나 및 국제해사영어 컨퍼런스(IMEC) 사업들이 우리 연수원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연수원의 교육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보유자산을 잘 활용해 신규사업에 도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주한다면, 연수원의 입지와 위상은 낮아질 것이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 연수원이 성장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저의 의견을 2017년도 말에 내부업무시스템에 게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객선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장비, 교육내용 등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돼 있고 연수원이 사용하는 장비도 외국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교육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직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연수원이 안전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PEC 회원국중 선원송출국가들의 선원정책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은 선원교육기관이라는 특성과 많은 해기전문인력을 보유한 장점을 잘 살려 자율운항선박에 대비한 해운인력양성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IMO에서의 선원자격에 대한 논의 등에서 선원송출국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시아 지역 선원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기관으로 도약하여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사영어에 대한 아시아권 공통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IMO 모델 코스로 제안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개도국 선원들의 승선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여 뿐만 아니라 선사의 교육수요를 유도해 연수원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고 세계 해사분야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션폴리텍 승선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IMO 승선실습교육 컨설팅 및 국외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오션폴리텍 학생들의 경험의 폭도 넓히고 연수원 직원들의 국제화 역량도 향상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선교육프로그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제화된 직무교육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를 비

롯해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해운인력교육과 관련, 연수원의 중장기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안 마련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관한 최신의 진행상황 파악과 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의 출현은 연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지만 개발동향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한다면 충분히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당당히 맞서 대응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통하여, 국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도 희망과 활기가 충만한 2018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연승 이사장

“공단의 전문성 높이고 그 위상구축에 노력”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연승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고 우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바다와 함께 한 해양수산인으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고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가슴 벅차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밑거름 삼아 해양수산가족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며 주어진 책임과 소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사안전전문기관’입니다. 해사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우리 기관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인 선박검사업무와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선진화하기 위해 해양분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이사장으로서 공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사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국제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의 기술력을 해외에도 알려 국가의 해사안전 분야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기틀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전문화된 업무는 시스템이나 기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공단 구성원 각자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분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단 고유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위험요인을 낮춰가겠습니다.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애로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업무와 노력을 국민적 공감으로 연결하는 소통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공단은 바다라는 큰 무대에서 국민과 고객을 최접점에서 만납니다. 공공성



해양환경관리공단 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

“공단 창립 10주년, ‘해양환경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

우리 공단은 차별화된 해양환경 분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생태계 기반 선순환 가치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체계화, 갯벌 자원의 활성화 및 복원 확대, 지역주도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구축 등 해양생태계 통합 솔루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전 및 유해해양생물 저감·관리 등의 해양생태계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전문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를 부산에 건립하고, 해양생태 및 해양환경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해양환경 모니터링 플랫폼도 구축하여 해양생태계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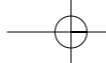
을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 믿음직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전문성과 주체성을 갖춘 뒤에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강국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모든 세대가 바다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상 과제들을 공단 임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공단의 비전인 ‘선박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이끄는 해사안전전문기관’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박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강성 회복과 해양환경 자원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연안 및 EEZ 등 해양공간을 포괄하는 전 해역의 통합관리 준비와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사업 실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단을 널리 알리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지원사업(ODA)과 해양환경분야 국제교육을 확대하고, 양·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환경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며 기능조정을 통해 공적가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약



천후 속에서도 방제활동이 가능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정보를 통합 연계한 지능형 해양오염 예방시스템 구축, 침몰선박 관리,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확충 등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해양오염 예방체계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및 폐유의 즉시 수거와 현장 중심의 해양정화 실시, 국가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오염물질의 선제적 대응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양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등의 해양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참된 해양환경 가치를 알리고 글로벌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형 신산업 발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해양대기오염물질의 종합적 관리에 집중하고 국제 환경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신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발굴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국가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선박평형수 비상처리시설과 같은 국제협약 이행 기반도 마련하여 외래유해종 유입으로부터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열린바다, Open KOEM’이라는 혁신 슬로건 아래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은 공단 창립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공단의 사명이 바뀌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0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단이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모두 희망찬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꿈을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4차산업 혁명시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노력 기울여”

지난해 우리 무역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다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큰 밑거름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상압박, 그리고 중국과의 사드 갈등처럼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단일품목으로는 처음으로 반도체가 수출 9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무역의 저력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혜안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했기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무역 환경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불안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통상과 관련한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산업과 무역구조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은 한층 더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무역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ICT, 서비스의 융복합을 활성화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들도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혁신과 아이디어, 민첩함을 무기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혁신의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리경제가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역협회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무역의 흐름과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수출 지원 서비스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제 한미 FTA는 본격적으로 재협상이 시작됩니다. 무역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산재한 통상현안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역협회가 대응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채널을

민간차원에서 강화하여 더욱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무역업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수 등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무역협회는 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깊이있는 연구와 정책 제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초불확실성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018년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우쫘록 업계, 정부,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 동력을 높여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18년을 ‘혁신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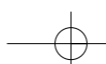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목표에 도전”

지난해 부산항은 개항 이래 처음으로 2000만TEU 초과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부산항이 세계의 물류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항 가족들과 임직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일궈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산항이 세계의 물류중심으로서의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국제해양관광레저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연구와 항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자 분야별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일류화로 승화되고 조직의 일류화가 세계 최고의 부산항을 만듭니다. 조직 차원에서 BPA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항이 세계 최고의 항만이 되려면 서비스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그 동안 양적인 성장에 비추어 구석구석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고 봅니다. 부산항을 이용하거나 부산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부산항과 BPA가 함께 성장 발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는지 작은 일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세심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BPA가 진정하게 일류 조직이 되고, 부산항이 세계 최고의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과제들을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에 의해 부산항의 역사는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이끌고 격려하며,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인천항의 주요 핵심사업 차질없는 추진”

인천항이 맞이하는 무술년 새해 첫 아침, 인천항이 인천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인천항의 역사적 결실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사의 주역이었던 한진해운의 파산과 조선업의 몰락 등 해운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구조조정과한중 외교관계 경색 등 혼란스러운 환경속에서도 그 중심을 잘 지켜 인천항 역사상 최초로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달성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 번 돌아보면, 인천신항과 골든하버 개발 그리고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배후부지 조성 등 목적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내항 재개발, 부두운영사 통합 등 항만운영 구도와 주변여건은 추진방향에 따라 공사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많은 반면, 새로운 수입 확보나 자산 매각 등에는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우리 공사와 인천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천항의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행이 요구됩니다. 인천신항과 함께 배후단지과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인프라 조성이라는 목적사업보다도 앞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분야가 안전입니다. 지진 등 예고 없는 각종 자연 재해와 함께 안전한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평소 안전과 보안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난해말 인천신항 1-1단계가 완전 가동이 되고 이에 따른 물동량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완전 개장에 따른 개선 사항이 없는지 또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 지를 살펴보고 인천항의 인프라에서 최상의 항만 생산성이 나올 수 있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인프라와 서비스를 챙겨야 하겠습니다.

수도권 해양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성공입니다. 새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설을 포함한 복합지원용지를 종합 개발하는 이 사업은

우리 공사의 안정적 수익구조와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자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핵심사업이니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하여야만 합니다. 지난해 한중 외교관계 경색 등으로 크루즈나 카페리를 이용한 해상여객 방한이 급격히 줄고 연관사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과 관광 인프라의 활성화를 도모할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이들 시설이 개장 후 최단기간 내에 운영 안정을 찾고 크루즈와 카페리, 관광객으로 붐빌 수 있도록 선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터미널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혹시 불편함이 없는 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 합니다. 골든하버나 내항 재개발, 부두운영사 통합 등 중대 사안부터, 항만운영 서비스 개선 같은 작은 사항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내부를 시작으로 이해당사자,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은 우리 사업과 항만운영에서의 난제 해결은 물론 정책적 지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니만큼, 저를 포함한 우리 공사 구성원 모두가 항상 다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투영할 덕목이자 기준으로 삼아주시길 당

부드립니다.

사회적으로도 우선 시급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비롯하여 상생협력·동반성장, 사회공헌과 같이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공공부문에서부터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을 통해 인천항의 미래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의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기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시도할 수 있는 혁신 경영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한 인천항, 친환경 항만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추진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은 우리공사의 몇몇 부서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수립한 IPA 국정과제와 현안과제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올 해부터는 국민이 공감하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해 역시 대내외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인천항의 비교우위와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은 전 세계 어느 항만에도 뒤지지 않는 만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방희석 사장

“고부가가치 복합물류항만으로 만드는데 더욱 정진”

지난해 우리 공사는 2억 9,000만톤을 처리하여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하였고 외래유입 해충의 성공적 대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등 공적기능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4월 컨테이너 크레인 3기 설치, 컨테이너부두 30% 시설사용료 징수 결정, 제2석유화학부두 국



고 예산 확보, 컨테이너부두 3번 선석 일반부두 운영사 선정, 리스컨테이너 업체 선정, 배후단지 기업 유치, 석유화학제품 저장 탱크 사업타당성 용역 등 미래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16명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호뜻함과 기대가 큰 축복이라고 믿고 있으며, 바로 이들이 조직의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10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새로운 시각에서 여수광양항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함께 공유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동안의 노력과 결실을 바탕으로 만들어 왔던 과제들이 뚜렷한 성과와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YGPA가 지금까지 6년여 동안 흘린 땀으로 이룬 것들을 더욱 견고히 하며 새롭고 발전적인 지평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 고민과 노력, 선택과 결정이 여수광양항의 미래는 물론 공사가 누리게 될 성과와 결과물의 크기와 보람을 좌우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결실은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입니다.

공사와 여수광양항이 나아가야 할 5가지 방향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수광양항을 고부가가치 복합물류항만으로 만드는데 더욱 정진해 나갑시다.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일반화물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항만입니다. 이러한 화물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배후단지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새로운 여수광양항의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스마트한 항만운영과 미래의 발전적 비전을 가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환경에 따라 항만4차산업,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물 부두의 체선문제 해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간 협력체계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부두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막힘없는 물류흐름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수광양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3단계 컨테이너부두 시설의 최첨단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물량 확보는 물론 새로운 계획과 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배후단지의 기업 유치와 화물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친화적 항만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 경영의 본격적인 실천입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정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등 모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가치경영팀을 신설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열린혁신과 조직혁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총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한 자신과 공사를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공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직장이자 일터로 만들어 고객과 협력사, 국민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인재육성, 즉 사람이 조직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자신 스스로의 발전과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조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긍정적 사고와 힘찬 파이팅으로 더 좋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더욱 경쟁력 있는 여수광양항,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가족 여러분, 호시우행(虎視牛行)이란 고사성어를 여러분께 올해의 화두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에코-스마트 항만”

지난 한 해도 지진피해, 낙숫배 전복사고,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 공사와 울산항도 많은 어려움에 겪는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울산신항 용연부두 2개 선석과 항만배후단지 3공구가 성공적으로 개장되는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사상최초로 물동량 2억톤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는 성과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에코-스마트 항만’이라는 우리 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대외에 선포하여, 울산항을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항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울산항이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선석의 접안시설과 30만㎡ 부지를 갖춘 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이 지난해 6월 준공되었고, 2단계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 구성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과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LNG를 포함한 에너지 허브로 승화시켜 나가는 한편,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북극물류의 거점화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CT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항도 지난해 12월에 구성된 ‘울산항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통해 신

기술을 접목시킨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해운항만물류 산업에 적용하여 울산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신항, 동북아 오일허브 부지, 항만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물류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항만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물류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에코-스마트항만으로서 울산항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울산항 해양안전벨트’를 더욱 세밀하고 공고하게 운영해 가면서, 3년째 되어가는 ‘3정 5S’를 정착시켜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울산항이 친환경항만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LNG 벙커링 시스템 구축·항만운영장비의 LNG 시스템 도입, 접안선박의 육상전력 공급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가면서, 항만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항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 기반구축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울산항 경비·보안 등 근로자들께서 정규직으로 조속히 전환되어 안정된 고용환경과 개선된 처우를 바탕으로 울산항 경비·보안과 신속한 화물서비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활동을 전개하여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 항만운영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옛 고사성어에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한다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산항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에코-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만가족과 임직원 모든 분께서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뭉쳐,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

력을 다하신다면 올해도 울산항이 활력이 넘치고, 해양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발전 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 드리며, 항만가족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황태현 사장

“개항 30주년, 중국시장 의존도 줄여 나가려”

2018년 평택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 구상 60년 만에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 해'가 밝았습니다. 해운 · 항만 물류시장 활성화와 장기불황을 보여온 해운경기가 2018년에는 다시 활력을 펼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택항과 우리 공사에도 풍요와 행복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은 개항 3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물동량의 90% 이상이 중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공사는 이러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을 이끌어내고 현지 포트마케팅을 통해 동남아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상반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중관계에 찬바람이 불 때에도 평택항은 동남아 시장 확대에 꾸준히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현안 과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동남아 물동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정기노선 항차수 증대와 동남아를 넘어 원양항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2-1 단계 개발사업 착공, 신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완공을 위해 현안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공사는 이

러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기업, 학계와 손잡고 핵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적인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공사는 창립 17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공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내부 시스템 정비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조직규모 확대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현재 내부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정비함으로써 더 크고 단단한 공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 과제를 설정해 경영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과거와 현재를 이끌어 왔고 미래를 책임질 직원들이야말로 공사의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